



남가주 교계가 연합한 가운데 지난 9월 7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에서 차세대 리더 장학금이 수여됐다.

IS,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심각한 종교 핍박 자행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 지목됐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조사담당관은 "IS가 북부 이라크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 종교인들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자행하거나 이들을 추방시킨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로베라는 "IS에 의해 자행되는 대량학살과 납치는, 북부 이라크 전역에 소수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는 IS가 몇 주 동안에 걸쳐 자행한 박해 행위의 세부 내용이 담긴, 2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3만명의 기독교인들, 시아파 무슬림들, 야지디인들 등이 고향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고, 수백 명의 야지디인 여성들과 아이들이 납치당했다. 또한 무슬림 외의 종교를 가진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바그다드 교구의 캐논 앤드류 화이트(Canon Andrew White) 목사는 이 같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심각한 종교 핍박"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IS와 관련, 이라크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도주의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우리는 이라크 소수파에 속한 여성·소년·소녀들에 대한 성적 폭력을 비롯해, 계속되는 폭력행위 보도에 대해 진지하게 염려한다"며 "극악무도한 납치 사건, 투르크멘과 사바의 여성·소년·소녀들을 비롯해 야지디족·기독교인을 구금한 행위, 야만적인 강간 행위에 대한 보도는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한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남가주 교계 차세대 리더 89명에게 5만6천 달러 장학금

미주 앳시리안 학생 6명에게도 장학금 수여

올해에도 89명의 학생들이 남가주 교계로부터 차세대 리더 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해부터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공동으로 모금해 수여하는 이 장학금은 올해 총 5만6500달러가 모금됐으며 모금된 전액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 행사를 위한 행정비 2200달러, 수여식 만찬비용 2000달러는 남가주교협, OC교협, 나침반교회가 분담했다.

이 장학금은 크리스천 학생들을

차세대 리더로 발굴하자는 취지로 지난 해부터 시작됐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저소득층 학생 외에도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타민족 학생에게도 10%를 배정해 놓는 등 특별한 규정 아래 시행됐다. 올해 장학생 가운데에는 미주 앳시리안 민족 학생 6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앳시리안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이라크에서 자신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 문제에 관해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대표로 정다 이 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중한 장학금을 전해 준 교계에 감사 드린다"고

간증했다. 남가주교협 박효우 회장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미국 주류사회로 나아가라"고 격려했고, OC교협 민경명 회장은 "이 작은 장학금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추었으니 앞으로 세상에서 이것을 갚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는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50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김준형 기자

미 전역 노숙자 선교사들 한 자리에

미주노숙자한인선교단체협의회(KACH) 신입회장에 아가페노숙자교회 유은주 선교사가 선출됐다. 이 단체는 울타리선교회(CA), 동지선교회(WA), 디딤돌선교회(GA), 기도의집(IL), 아가페교회(CT), 평화나눔공동체(DC) 등 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노숙자 선교단체들의 연합체로 8년 전 김진숙 목사에 의해 창립됐다. 9월 8일부터 3일간의 일정

으로 LA 성광장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발표하고 비전을 나누었다. 협의회 측은 보다 많은 동역자와 노숙자 선교에 협력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주정부에 501세금공제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사진 앞줄 좌측 세번째부터 유은주 신임회장, 김진숙 목사, 니주옥 전임회장.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3)

“교회도 하나 없는, 영혼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4월 25일 우리는 돌무시라는 14인 승 작은 시외버스로 아드야만이라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아드야만에 내려 무작정 걸었습니다. 터키는 웬만한 도시에는 칼레라고 하여 옛 성벽 터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성벽 위는 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아서, 우리는 칼레와 사람들을 가끔씩 많이 접하기 위해 벨 키스(번화가)를 돌으며 그 방향으로 한동안 걸었습니다. 더위속에서 땀을 흘리며 걷는데 내 귀에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하면서 주위를 살폈지만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그런데 좌판에서 담배장사를 하는 한 터키인이 환한 미소를 띄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지요?” 하는 것 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하다가 어떻게 한국말을 아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5년 간 노동자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이름은 카야. 43세. 악수를 하는데 엄지와 검지 손가락 한 마디씩이 없었습니다. 한국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쁜 사장님한테 월급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한국인으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 좋은 사람 더 많아요.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 다른 공장에서 만난 분들은 다 좋아요. 나 한국 좋아요. 다시 가고 싶어요”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우리 가족 아직 몰라요. 그런데 여기 교회 없어요.”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을 고장 난 수도꼭지 같았습니다. “교회 하나도 없어요?” “수리아 정교회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가까워요?” “네. 가 볼래요?” “그래요. 가고 싶어요. 테러나 줄 수 있어요?” “네. 일 끝나고요.”

저녁 8시쯤 일이 끝난다 해서 지금이 4시쯤이니까 우리는 칼레에 가서 시간 보내기로 하고 8시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정교회를 본 후에 그가 자기 집에 오라 하여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드야만 칼레(성벽 위)에 올라 우리는 찬양하고 도시를 축복하며 영혼들을 위

해 기도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인이라 했더니 어느 쪽이냐고 묻습니다. 남쪽이라 했더니 좋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스. 대학생이었습니다.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이내 그 청년에게 내가 할 말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냐고, 잠시 말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다 그러라 응낙했습니다. 미리 써 간 터키어 발음을 한글로 쓴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죽은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등을 읽어내려 가는데 그는 저의 발음이 틀린 것은 수정해 주며 다 들었습니다. 거의 수긍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기도해 주어도 좋냐고 물었더니 그가 괜찮다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청년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8시에 카야가 일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수리아 정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해는 떨어져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여러 번 꺾으며 돌아서 문

에 섰는데 조그마한 십자가가 문설주 위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도 하나 없는, 영혼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벨소리를 듣고 한 청년이 불안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카야가 터키어로 우리들의 방문 목적을 말하고 들어가도 되냐 물었습니다. 승낙을 받고 뜰을 지나서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강대상에는 전형적인 정교회 스타일의 금색 장식의 문양이 있었고 좌우의 벽면에는 사도신경과 십계명이 아름다운 고딕체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1883년에 세워졌는데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피해 터키를 떠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 오히려 이 교회는 세워졌고, 현재까지 무수한 핍박과 폭력을 받으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카야가 자기 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20여 분 가다 내렸습니다. 2층 집인데 아래층은 공장에 세를 주고, 2층에 방 네 개짜리 꽤 큰 건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국에서 돈벌어서 산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 얼마나 힘겹게, 눈물겹

게 설움을 당하며 일했을까? 생각해 하며 가슴이 몽글해졌습니다.

아내와 큰 아들 그리고 딸 셋. 너 무나 예쁘고 활발한 아이들입니다. 가정이 밝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카야는 죽어도 불사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팔찌를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진을 찍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카야는 다음날 아침 우리를 마중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꼭 또 와요. 내 전화번호 안 바꿀 거예요. 꼭 와야 돼요.” 하룻밤의 만남의 정이 어찌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카야가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 주세요.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탄 돌무시 시외버스는 말라티야를 향해 달렸습니다. 아! 말라티야! 지난 7년간 그토록 보고 싶었던 곳. 더 정확히 말하면 2007년 세 분의 순교자들이 무슬림 폭도들에게 순교 당했던 그 현장을 밟게 된다는 마음이 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계속)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한방감기 특별처방!!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1-855-386-3088, 1-213-500-4563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깨끗한 물 선물했어요”

22명 한인 청소년들 7천 달러 아프리카 식수 개발 위해 기탁



아프리카 차드 사람들은 우물이나 수도가 없어 물을 구하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간다. 굿네이버스는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파기 사업을 지속해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우물을 팠다. ©김상동 사진 작가

미주 한인 청소년들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7천 달러를 기탁했다. 한인들로 구성된 찬양 선교단체 갓스이미지(God's Image)는 지난 8월 16일과 23일 동양선교교회와 라미라극장에서 열린 정기 공연을 통해 7천 달러를 모금했고 자신들이 홍보대사로 있는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지난 1990년 LA에서 12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이래, 갓스이미지는 한인 청소년 문화 사역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해 현재는 에리조나, 버지니아, 밴쿠버, 브라질 등 미주 7개 지부에서 600명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갓스이미지는 2013년 12월 굿네이버스USA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빈곤국가 어린이들의 교육과 급식, 식수 지원 사업에 참여해 왔고 지난 해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 개발 사업을 후원한 이후 올해에도 이미 2개의 우물을 후원했다.

굿네이버스가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구호 분야는 아프리카의 식수 개발 사업이다. 오염된 식수 문제만 해결되어도 각종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로 어린이, 여성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식수 문제 해결은 어린이 교육과 여성들의 생활 안전 및 복지에도 직결된 문제

다. 굿네이버스는 이미 차드,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에 251개의 우물을 개발했다. 우물은 하나당 약 3500달러에서 87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갓스이미지의 대표 변용진 목사는 “굿네이버스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가 후원하는 7천 달러도 우물 2개를 개발하는 데에 전액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굿네이버스가 빈곤국가의 차세대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는 점이, 갓스이미지의 설립 정신과 사역 목표와 부합된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USA의 김재학 실장은 “한인 청소년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갓스이미

지의 비전은 굿네이버스의 어린이 후원 및 교육 사업과 추구하는 바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연을 위해 헌신했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나라의 친구를 도왔다는 점에 큰 감동을 표현했다. 애슐리 유(16) 양은 “풍요롭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캐시 김(16) 양도 “지구 한 편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나의 기도와 실질적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후원 문의 : 877-499-9898

김준형 기자



9월 4일 갓스이미지가 굿네이버스의 아프리카 식수 개발 사업 Water for Life에 7천 달러를 기탁했다. 사진은 굿네이버스USA의 김재학 실장, 갓스이미지의 샌디 번 디렉터와 변용진 대표.

한인 사회의 미래 걸린 선거구 문제

“교회와 성도 나서 달라”



한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앞줄 좌측부터)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로버트 강 변호사, 임혜빈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회장, (뒷줄) 박창형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소장, 데이빗 류 제4지구 시의원 후보, 알렉스 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약식 재판을 하루 앞둔 8일 한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그 중요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일단 선거구 재조정은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란 점이다. 현 선거구는 특정 인종을 중심으로 설정돼, 결국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인타운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정치인을 선출하지 못하게 해,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퇴색시키고 만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이 10월 초에 시작되는데, 그에 앞서 약식 재판이 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콘셀로 마살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판결은 2-3일 후 혹은 최대 10월 7일 이전에 내릴 전망이다.

현재 한인타운 측과 시의회 측 모두 약식 재판을 걸어 놓은 상태로, 여기서 시의회 측이 승리하게 되면, 소송은 1차적으로 끝난다. 물론 한인타운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측이 패배하게 되면 본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역으로 한인타운 측이 승리하게 되면 이 문제를 주민 투표에 붙이게 되며 중국에는 선거구 재조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인타운 측이 패배하면 소송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긴 하다.

데이빗 류 시의원 후보는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떤 경우에도 ‘이젠 한인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목소리를 낸다’란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은 “끝까지 갈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이 싸움은 6-8년 걸릴 싸움이다. 이제 겨우 4분의 1 왔다”고 했다. 임혜빈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회장은 “한인 커뮤니티는 LA 내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이지만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재조정이 이뤄지면 한인타운의 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선출이 가능해 진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인들의 명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인 에이킨켄프가 무료 변론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각종 법률 자문 및 서류 비용으로 10만 달러가 필요하다. 현재 약 4만 달러가 확보된 상황으로 10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박창형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소장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나 목회자가 나설 경우 더욱 신중하게 대한다”면서 “한인사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면서 한인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100달러, 성도 한 명이 10달러 씩 후원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혜빈 회장은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라며 기도를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홍원지부: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201 Lajolla Fairfax
역도 메도넬드 Wilshire

“교회의 회복, 마틴 루터 같은 사역 필요해”

행복한주님의교회 백재준 목사

랜초쿠카몽가 지역의 행복한주님의교회는 작지만 큰 사명을 지닌 교회다. 예배와 속회모임, 문화학교, 수요저녁 성경연구, 중보기도 및 제자훈련을 통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해 온 이 교회는 16세기 잘못된 가톨릭 교리에 잡혀있던 이들을 마틴 루터가 해방했듯, 이 시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있는 이들의 회복을 꿈꾼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의 파도처럼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손길로 다가오며, 어떤 이에게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조용히 다가온다. 원수를 사도로 부르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진 바울 같은 이가 있는 한편 극적인 회심 사건없이 하나님을 섬긴 이삭, 디모데 같은 이도 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는 게 좋았다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음성에서 목회의 소명을 발견했다는 백재준 목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로 이끌거리던 바울을 고꾸라뜨린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열어주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신앙의 길이 단숨에 일어나는, 홀연한 변화로 점철되는 것만은 아님을, 정도를 밟듯 차분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이도 있음을 그는 이야기한다.

젊지만 마음이 가난한 시기 하나님이 살아계심 체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했다. 이 질문에 자신은 모태신앙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극적인 순간은 없었으나 젊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시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지만, 현실 속에서 제 안에 열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체험했다. 늘 그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열렸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그런 체험을 하며 인생의 방향을 잡아와서 지금에 이르렀다.”

처음 미국에 올 때만 해도 백재준 목사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을 바꾸고 다른 길로 그를 이끈 것은 말씀이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면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중 하나는 예수님을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누가 내 형제고 부모나,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형제다’라는 말씀이었다. 미국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들이 나의 형제고 혈육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성격이 자신 있게 앞서 나가는 성격이 아니기에 개척교회는 생각도 안했다. 그러다 우연하게 선배목사님의 개척교회로 도우며 ‘개척교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풀러신학교 안의 조그마한 학생회관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다.”

교회성장만 추구하던 시대는 끝

대형교회에서 성장하고 부교역자 사역을 오래한 백 목사의 관심사는 자연히 교회 성장보다는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인들이 회복될 수 있을가라는 교회갱신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미국 내 한인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가 화두가 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세속화다. LA지역 많은 교회가 규모가 작아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 공급이 부족하다. 저희 교회만 해도, 교인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또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경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교회성장을 크게 해서 이름을 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가 중요하다. 실제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 해제한 5년

개척한지 5년,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에 대해 묻자, 조심스럽게 변화를 증거했다.

“쉽게 얘기하기 어려우나 조금씩 변화가 보인다.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고자 한다. 또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진 않는다.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 자기 안의 상처, 잘못된 생각, 자기의 욕심과 고집 등 어느 한 부분에서 꼭 막혀 있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 하나 조금씩 풀어지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구나’, ‘말씀이 좋은 얘기만 써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간다.”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

매우 극적인 상황에서 목회 소명을 받는 이들도 있으나 백 목사가 소명을 받은 사건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아니, 사건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그러나 잔잔한 그의 고백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인턴으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저는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 일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일반적으로 목회를 하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도 땀 흘리며 고되게 산다. 세상에서 살아 가려면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산다.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을 주셨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라면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진학했고, 신학교를 다니며 차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다.”

개척의 자리는 망망대해에 조각배

2007년 풀러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풀러신학교의 작은 학생회관을 빌려 교회를 개척하며 동시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들의 소모임을 인도하게 된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이민교회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백재준 목사

목격했다.

“개척하면서 ‘땀방에 헤딩했구나’란 생각이 든다. 한국은 큰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데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다. 망망대해에 조각배를 타고 나온 느낌이었다. 잘해보고 싶은 열정도 있으면서 정말 막막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됐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이들 섬겨

“그러다 어떤 계기가 있었다. 팔로스버디스 지역에 소그룹 모임이 있었다.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받은 이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패서디나에 살고 있어서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목회도 해야 하지만 선교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그때 주셨다. 목회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만 선교는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목회를 하고 평일에는 소그룹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냥 같이 있어줬다. 2년 가까이 그 모임을 섬겼

는데 한두 분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봤다. 그 과정을 통해 여기 사는 분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복음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풀면서도 영적으로 갈급해 했다.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소그룹을 정리하면서 행복한주님의 교회가 열리게 됐다.”

교인 수 30명,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우선 드는 생각이 ‘힘들지 않을까’다. 그러나 교인 수가 많은 교회는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나라(잠17:1)”라는 말씀에 이를 비유했다.

“다행히 교인들을 잘 만난 것 같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목회자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는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돼 있어 새로운 분들이 와도 그 분위기를 따라간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로잡혀 있어 마틴 루터와 같은 사역 필요해

그의 장기적인 비전은 “교회의 회복”이라며 그는 오늘날의 시대를 바빌론 포로기, 마틴 루터 시대에 비유했다.

“왜 회복이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바빌론 제국처럼, 그 당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가톨릭에서 그리스도인을 구원한 마틴 루터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교인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만 해 보았는가? 자기 욕심과 야망,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되거나 잡혀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현주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바빌론에 끌려갔다. 그들을 끌고 나와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회복’의 비전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저의 목회철학이다. 지금까지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왔다면, 이제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 주디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안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제2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영훈 목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류당열 목사

제16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공동회장: 박효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

양과 염소의 구별

마태복음 25:31~4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됨

영국의 어느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가님에 초대받아 광부 8,000명 가량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은 경도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모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져서 잘못 살았던 지난날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을 통한 권세와 능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 날 비지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누군가 뒤에서 “저는 목사가님에 땀을 흘리고 목이 쉬도록 외치시지만 그것이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앉아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본교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목사는 시간낭비인 것 같아 돌아가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말씀 중에 믿지 않는 자는 유향불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이렇게 떠날 수가 없으니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목사는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함으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영혼은 성령을 받고 영적 소망의 기쁨으로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경도에 들어갔던 그는 경도의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묻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머니 속에 있었던 요한복음으로 된 쪽복음을 가슴에 안고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했지만 이 사람만은 오히려 살아남았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알고 어젯밤에 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습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하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후에 신학을 하고 이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쓰실 기대 때문에 허물어진 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 고집대로 그 밤을 보냈다면 죽었을 것이

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2. 양과 염소의 기준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 예수님이 심판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어 양과 염소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구원 얻은 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애쓴 사람들은 크게 칭찬하시고 영생의 주인공으로 들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교인으로서의 행세는 했으나 예수님 보시기에 영적인 소망이 실재하여 족정리와 염소로 확인되면 그 원편에 두실 것이라 합니다.

성경에서 양과 염소로 표현한 것은 양은 온순하여 그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지만 염소는 고집쟁이고 음탕하고 욕심꾸러기 성격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고집쟁이고 욕심쟁이라 함은 지나친 자기중심적 성격을 말하고 음탕한 것은 혈기와 정욕적인 것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마25:32~33).” 오른쪽은 항상 보호와 힘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왼쪽은 버려지는 위치를 상징합니다.

오른편의 양떼들에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5~36)”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들은 의인들, 신앙인격이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임금에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마25:27~29)”하고 묻습니다. 이들의 솔직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라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25:34)”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25:41~43)”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마25:44)”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 피할 수 없는 심판

예전에 서울법원 판사를 하고 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강 상류 쪽으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중 한 청년이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의 발목을 잡고 끌어 올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후 그 가족들은 고마움을 때때로 찾아와 죽을 목숨 살려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 중에 피고석에 선 자가 자신이 구해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자신을 장로님께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나는 판사로, 너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다. 예전에 너를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너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하며 죄지음을 책망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칼날같이 예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천천히 주지 않으려면 왜 그때 나를 살렸느냐며 원망 섞인 소리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보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

상 진리에 입각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공명정대하게 양떼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선 검으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완전히 도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수술 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디어지게 만들어 자신의 양떼의 등이나 굽어주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관계는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맘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얻은 구원에 보답하는 참 기쁨과 생기와 소망에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은혜가 과분하게 생각되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지 생각하며 섬김을 다하고 애썼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른쪽에 세워주시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았으면서 성질도 못 고치고 자기중심적인 고집과 자기일장부터 앞세우는 욕심, 자기를 과시하거나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행패, 혈기와 정욕들은 염소에 해당되는 심판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차리고 지금껏 염소처럼 잘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겸손하고 진실된 양의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F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 기초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3: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반주자 청빙

자 격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 info@sunhanchurch.com

문의 :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장로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진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폴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글 성경 번역 및 출판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류 구원의 길이 여기 담겨 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 1500년까지 성경은 한 두 언어로만 번역되어 있어 누구나 읽을 수는 없었다. 또 가톨릭교회는 평신도의 성경 읽기를 엄금했다. 1500년 경까지 금속활자가 발명되지 않아, 그 이전에는 손으로 쓴 수기본만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교회개혁가 마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면서,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 출판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절대라 여겨오던 교종(교황)은 절대라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sola scripture) 절대라 선언했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성경의 교회이며, 성경이 이 교회의 중심이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맨 먼저 착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성경 번역 사업이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이전, 벌써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물론 이 성경은 전체가 번역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번역 출판된 쪽복음서였다.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쪽복음서가 국내에 유입되어 반포됐다. 따라서 내한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지 선교사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전에 번역된 성경이 번역상의 오류와 용어의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성경번역 사업을 맨 먼저 실행한 사람은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는 이미 번역된 것들이 “중국어 단어들로 가득 차 있고... 형편없는 철자와 형편없는 인쇄” 때문에 처음부터 번역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슬퍼했다. 그러나 번역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펜젤러는 한글 성경 번역이 “두 나라 사이를 잇는 철도를 부설하는 것과 같다. 파나마 운하 개설 공사가 이보다 더 어려웠겠느냐?”고 난감해 한 바 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더불어 그들의 아학선생 김경삼, 김명준, 이장식 등의 도움을 받아 마가복음부터 번역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1887년에 1차 번역이 끝났고 바로 출판 작업에 들어갔다.

1887년 초, 언더우드가 새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인쇄하기 위해 일본에 체재하고 있을 때 주일(曜日) 미국성서공회 대표 헵번(J. C. Hepburn)은 그에게 성경 전체를

번역하기 위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라 충고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언더우드는 곧 감리교 선교회에 성서번역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 전원이 모여 성경의 한국말 번역이나 또는 그 번역의 감수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887년에 성서번역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이 선임됐고, 위원장에는 언더우드가 선출됐다. 언더우드는 이때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1916년까지 계속 위원장 임무를 맡아 일했다. 따라서 언더우드가 한글 성서번역에 세운 공로는 그 어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보다 지대하다.

위원회는 임시 현장과 세칙을 채택했는데, 내용은 상임성서위원회, 번역위원회, 그리고 수정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1890년 6월 상임성서위원회는 2년 내에 신약전서전권의 시험판(試驗版)을 내놓을 2인 위원을 임명했다. 2인 위원은 언더우드, 스크랜튼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을 착수하기도 전에 안식년으로 떠나, 이 사역은 순연될 수밖에 없었다. 1893년에 이르러 조직을 개편하고 위원을 추가하여 성서번역상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성경번역에는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쳤다. 첫째, 선교사들이 조사들과 함께 번역을 한다. 둘째, 다른 번역자들에게 보여 그들의 견해를 듣고 수정한다. 셋째, 다시 다른 번역자들이 읽고 초고를 개정한 준비 역본(譯本)을 작성케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한 절씩 읽어 가면서 토의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결로 확정짓는 세심한 과정을 거치는 원칙을 정하고 번역에 임했다.

1896년까지 신약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2단계를 통과한 역본이 없었다. 그러나 성경 수어가 빗발치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인쇄하여 배포했다. 1897

년 위원회는 제2단계 과정을 생략하고 실행위원들이 공역(共譯)하는 형식으로, 1897, 1899, 1900년 세 차례에 걸쳐 번역본을 점검했다. 1900년 5월 최초의 대자(大字) 신약성경 12,000부가 감리교출판사에서 출판됐다. 소자(小字) 신약성경 15,000부와 복음서 사도행전 합부분(合部分) 10,000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됐다.

중국은 완전 번역된 신약성경을 갖기까지 첫 선교사가 들어온 후 5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15년이 지난 후였다. 신약성경의 출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서울에서 일하던 모든 선교회와 각 기관 관계자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드렸다.

신약번역이 끝나자 번역위원회는 바로 구약 번역에 착수했다. 구약은 분량에 있어서 신약과 비교할 때 몇 배 많았다. 번역위원들이 갖가지 일들로 번역에만 매달릴 수 없어 그 진행은 매우 느렸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1910년에는 드디어 구약이 완역됐다. 그 이듬해에 이것이 출판되어 한국어로 된 신구약성경이 햇빛을 보게 됐다. 한국인들이 비로소 참진리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이 신구약성경의 완역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번역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한 크나 큰 결실이다. 성경전서가 출판된 일에 대해서 장로교선교부에서는 본국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

“1911년은 성경 전체를 완성한 해로서 기록되어질 것이다. 이 해는 킹 제임스 판(King James Version)이 출판된 지 301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국 언문성경이 출판된 원년이 되는 해이다. [성경공부를 하는] 반(班)들에게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선교부는 이 일을 위해 크게 공헌한 세 분들, 언더우드 박사, 게일 박사, 그리고 빼에터스 씨에게 찬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 성경은 1937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판을 개역(改譯)성경이라 부르고, 개정 이전의 본래의 것을 구역(舊譯)성경이라 부른다. 성경은 철저히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고, 또한 쉬운 말을 골라 쓰려고 애를 썼다. 따라서 한글을 터득한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읽을 수 있어 성경 읽기 일상화에 큰 공헌을 했다. 그 후 성경은 여러 번역본이 나와 다양한 성경이 현재 사용 중이다.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극적으로 먹습니다. 달게 먹고, 맵게 먹고, 짜게 먹고, 짜릿하게 먹습니다. 많이 먹고, 불규칙적으로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먹기 때문에 모든 병들이 생깁니다.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 그리고 고도비만 같은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배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으면 배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먹지 말라는 것들은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반대로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들은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가 납니다. 커피보다 열 배 더 나쁘다고 하는 라면은 이 유식을 갖 끝낸 아기들도 좋아합니다. 반면에 인삼이나 좋은 약재들이 들어간 보신음식들은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평범하게 조리된 음식보다는 튀긴 음식, 자극적인 조미료로 조리한 음식들이 입에 짹짹 달라붙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먹으면 요절(夭折)합니다. 제때에 알맞게 먹어야 합니다. 미루었다가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고 위장이 망가집니다. 한 번은 막내아들이 저녁에 친구들과 뷔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아침, 점식을 건너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랬겠지만, 하루 종일 허기졌던 배에 기름진 음식들을 마음껏 채웠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폭식한 것을 다시 게워내느라고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양식입니다.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잘 가려먹는 습관을 체득해야만 합니다.

“육의 양식”도 그렇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세상의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동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건강하게 습득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가끔은 별미의 말씀도 좋지만, 대부분은 주식인 “밥”을 먹는 것처럼,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해야 합니다. 맨날 김치에 콩나물 같은 말씀이라고 푸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항상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입맛이 망가져서 진술한 설교자가 차려주는 “깊은 맛이 나는 단순한 음식”의 참맛을 놓쳐 버리기 쉽습니다. 밥맛 안 난다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객지에서 사먹는 밥은 결코 영혼을 살찌우지 못합니다. 맛이 없어도 집에서 차려진 밥을 골고루 먹고 세상에 나아가서 힘쓰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사람은 자고로 잘 먹어야 합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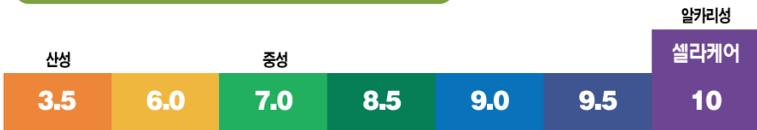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사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제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정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영(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는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선(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범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팍(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숙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볼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20

얼마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장의 관상 동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기쁘기도 합니다. 관상 동맥이란 것은 원인이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년후에는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것과 같습니다. 수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로 인체에서 심장에 의해 피를 공급받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은 없고, 심장 자체도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관상 동맥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피를 공급하는 동맥과 그 가지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대동맥과 관상동맥을 연결하는 관상 동맥(冠狀動脈)은 심장의 근육(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라고 말합니다. 관상 동맥은 대동맥의 큰 줄기에서 좌우 두갈래로 나누어져서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둘러싸여있는 모양이 관(冠)과 같다고 하여서 관상 동맥이라 불립니다. 관상 동맥은 우(右)관상 동맥(RCA)과 좌(左)관상 동맥(LCA)이 둘로 나누어져있고 또다시 여러 작은줄기의 동맥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동맥은 나무의 몸체이고 관상동맥은 굵은뿌리이며 여기에서 작은 실뿌리로 나누어지는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등도 이곳이 잘못되면 걸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전대통령의 수술은 나무몸체에 해당하는 대동맥에서 굵은 뿌리에 해당하는 관상동맥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또는 막혀서 관상동맥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대신에 그 무투부로 연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이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음식물 인하여 피가 탁하게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원인치료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재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을 예방할수 있으며, 이미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사이며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악을 범해서 약20년간 가나안왕 아빈의 지배를 받게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빈군대는 아주 강력한 철병거를 가졌는데, 사사기1장19절에 보니까, 옛날 여호수아가 있을때도 유다 족속이 이 철병거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대를 강바닥이 말라서 물이없는 기온강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게하여 모두를 전멸시키고, 도망가는 아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도 여자 아엘의 손에 의해 죽게되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구원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사사기1장19절 "그가 신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4장3절 "아빈왕은 철병거 구백송이 있어서 이십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골철병거 구백송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온강으로 모은지라" 5장19절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온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온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표류시켰다고 하니, 물로 격퇴시켰다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물 때문에 병거가 움직이지 않아서 내려서 도망가다가 죽게됩니다. 드보라의 찬양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돌음 같게 하 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심장에 관한 병들을 예방할수 있으며, 어떻게 치료할수 있을까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먹으면 이런 병들은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치유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무료건강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770.457.171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아가페훈련원 개강 “일 많이 했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

얼바인온누리교회 “문화에 복음을 실어”

“단순한 지식 습득 아니라 생활화, 체질화시키는 훈련되길”



아가페 사역자 훈련원이 개강을 맞아 개강예배를 드렸다.

목회나 선교에 결실을 맺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신학을 깊이 파고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신학이 학문적 영역만이 아닌, 사역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역의 승패를 좌우할 신앙적인 훈련도 포함해야 한다는 신학계의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온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신학 교육’과 사역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훈련’,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LA 아가페 사역자 훈련원(International Agape Ministerial Training Center)이 새학

기를 열며 9월 6일 오후 3시 아가페 선교교회 교육관에서 사역자훈련원 개강예배를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 훈련원의 설립자인 김요한 목사는 개강예배에서 사역자,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음에 자세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리 주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귀하다고 말했다. 또 사역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사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박문환 목사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역자 훈련원의 일정, 강의, 훈련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가페 사역자 훈련은 올해 9월~11월과 내년 3월~4월 총 만 5개월에 걸쳐 사역자들을 훈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 사역, 세계선교와 창의적인 제자사역, 효과적인 사역의 도구,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이뤄지며 DVD 동영상 강의 및 그룹 워크샵,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아가페 크리스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훈련원 수료증을 받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선교지에 파송 받을 수 있다.

LA 아가페 사역자 훈련원 :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213-368-7991

얼바인온누리교회 산하 문화아카데미가 얼바인 지역에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9월 개강 당시에 ESL을 포함해 총 4개의 강의에서 현재는 8개의 강의가 12주 과정으로 제공된다.

교회 측은 이 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각 분야마다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수준을 높인 것이 지역사회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문화’라면 재능있는 특성인들만 누리는 것같은 편견을 깨뜨리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도 한 이유다.

이번 학기에는 티파니와 배우는 최강 영어, 개울가 오두막 문학 산책, 한나의 코바는 이야기, 구름따라 꿈을 꾸는 사진, 도자기 페인팅 명품 도전, 그래픽 디자인 정복하기, 요리 클래스 호연엄마와 요리조리, 나도 가수다 등 재미만 이름의 문화 강좌들이 개설됐다.

문의 및 상담 : 213-840-5015

베델한인교회 창작 뮤지컬 <거룩한 순교 손양원>

베델한인교회가 순교자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을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무대에 올린다. 오는 9월 20일과 21일 주일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 본당에서 공연이 열리며 관람은 무료다.

이 뮤지컬의 제목은 <거룩한 순교 손양원>이다.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 반대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일생을 한센병자들을 섬기다가,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이 순교하며, 친아들을 순교시킨 그 원수를 양자로 삼고, 결국은 6.25 때 자

신도 순교하고만 손 목사의 삶은 실로 감동 그 자체이다.

교회 측은 “이 감동을 음악과 춤에 담기 위해 70여 명의 아마추어 배우들이 6개월간 연습했다”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손 목사님 가족들의 희생을 재현하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되돌아 보고, 믿음 생활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문의 : 949-854-4010 김나래 기자

물류아카데미 통해 물류 전문가 되세요!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사이좋게’ 설립

미주한인물류협회(KALA, Korean American Logistics Association, 대표: 데이비드 백)가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물류아카데미를 오는 9월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디나 컬처센터 2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



미주한인물류협회는 물류 아카데미 개최를 앞두고 임원회의를 진행했다. 데이비드 백 회장(가운데), 박성준 사무국장(오른쪽)

항공, 해상, 통관, 트럭, 창고업 등 물류사업에 종사하는 400여 단체 및 업체로 구성된 미주한인물류협회는 물류 관련 규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공동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이후 LA영사관, KOTRA, 지상사협의회, OCTA 등 한인단체뿐 아니라 US Chamber of Commerce, USTR, Direct Export Council 등 미국 주류 물류 단체들과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 교류하며 한미 통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협회의 주최로 오는 9월 13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디나 컬처센터에서 열리는 물류아카데미에는 해상, 항공, 통관 및 트럭(육상운송) 현직 전문가와 공학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업무와 관련된 심화교육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강의를 제공해 현장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실무경험이 풍

부한 현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장기호 대한항공 LA화물지점장이 <항공화물 운영>을, 데이비드 유한진해운 부장이 <해상 운송 실무>를, 브라이언 선 오션블루익스프레스 회장이 <해상 운송 실무>를, 앤드류 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장이 <통관 실무 및 안전규정>을, 이시종 물류협회 트럭운송부 부회장이 <터미널 운반과 운영>을 강의한다.

이 세미나의 대상은 신입직원 및 3-5년차 직원들이며, 백 회장은 “강의를 통해 업무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UCB Logistics, HTNS America, Impex GLS, James Worldwide,

Binex Line 등 다수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백 회장이 공약한 교육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KALA는 앞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아카데미, 위험화물 취급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원은 선착순 150명, 회비는 회원 50불, 비회원은 80불(교재 및 중식, 간식 포함)이다. 강의 후에는 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문의 : 714-255-5163, 714-699-0544(김군도 사무장), 310-988-7040, 310-953-5705(박성준 사무국장), kala.direct@gmail.com 주소 :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는 NGO ‘사이좋게’가 설립 예배를 드렸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는 ‘사이좋게’가 설립 예배를 6일 오전 11시에 노스리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드렸다.

예배는 기도 지성은 목사(새생명교회), 말씀 류재덕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특별찬양 이은수 목사,

축도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 부총장) 순으로 진행됐다.

‘사이좋게’는 고아원 지원 사업, 나무심기 사업, 농업 지원 사업, 의료 지원 사업을 북한에서 펼치고 있다. 문의 : 818-341-4003 박기성 기자

선교적 기업 경영 어떻게 하나?

은혜한인교회 실업인선교회가 성경적이며 선교적인 기업 경영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선교적 기업 경영학교 Grace Business School”을 9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9주 과정으로 시작한다. 윗튼대의 이민동 박사(사회학),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민성욱 교수(경영

학) 등 학자와 함께 현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김구희 박사, 황성수 씨 등도 강의한다. 이 학교에서는 마케팅, 기업 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배우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계획을 짜고 발표한다. 참가비는 200달러다.

문의 : 714-713-0948

2015년 달력 할인행사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9월19일 까지 마감합니다. 빨리 주문 하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디자인의 달력을 준비하세요.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탐미디어에서 2015년 달력제작으로 귀 교회와 단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할인 품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양질의 달력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단체위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www.topmediausa.com

다양한 디자인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벽걸이형 \$ 2.75 부터 (100 Min)

탁상용 \$ 3.00 부터 (100 Min)

차량용 Special Price

• 달력뿐 아니라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 설교, 음악시디, 세미나, 신학교교재용 오디오북, 전도/홍보용 물티슈 각종 인쇄(명함, 카달로그, 주보, 헌금봉투, 각종 포스터, 현수막) 교회, 단체 로고 디자인, 실내외 차량용 사인, 티셔츠, 수건인쇄, 각종 판촉물)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흑인 80% “퍼거슨 사태는 인종이슈”

흑인들 대다수는 지난 9일 미주리 퍼거슨에서 비무장한 18세의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 다렌 윌슨이 쏜 총에 사망한 사건을 인종 이슈로 보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실 규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청소년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 경찰이 총을 쏘았다는 인식이 흑인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의 80%는 이번 사건을 인종 이슈라고 답했다. 반면, 백인의 47%는 이 사건에서 인종 이슈가 지나치게 포커스되고 있다며 인종 이슈라고 보는 시각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시각은 지난해 2월 플로리다에서 역시 비무장한 17세의 흑인 청소년 트레 이븐 마틴이 히스패닉계 백인으로 자율 방법대원인 조지 집머만이 총 쏘에 사망한 사건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 흑인의 78%는 그 사건을 인종 이슈로 보았고 백인의 60%는 인종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플로리다 사건은 몸싸움 과정에서 트레 이븐 마틴이 조지 집머만의 뒷머리를 팔바닥에 수차례 짚는 등 집머만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 분명하다며 배심원들은 이 상황에서 집머만이 총을 발사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보았다.

집머만은 증오나 약감정을 갖고 저지른 살인인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집머만이 마틴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6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판결에 대해 미국의 흑인사회는 정의가 실종되었다며 실망했는데 이면에는 뿌리깊게 남아있는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상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미주리 퍼거슨 사건에서는 백인 경찰이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그 사실이 흑인들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고 분노한 흑인들은 길거리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과 총들이 벌어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흑인이 미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흑인들의 의식은 여전히 깊다. 오바마 행정부는 퍼거슨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흑인 최초로 연방 법무장관이 된 에릭 홀더를 급파했다. 흑인들 대다수가 경찰, 검찰 등 미국의 사법기관들이 흑인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며 퍼거슨 사건에 대한 이들의 조사도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흑인 68%는 미국 사법 기관들이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퍼거슨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들의 조사에 대해서 흑인 7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현희 기자

美 공립학교, 무신론자 압박에 기도와 성경 금지

미국의 한 공립학교가 무신론자 단체의 압박에 의해 기도와 성경 문구 사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공립학교(Orange County Public School)는 풋볼팀의 경기 전후로 지역 목회자들이 기도를 인도해 왔던 전통을 중단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 때 성경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알렸다.

이는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 단체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 학교 측에 기도나 성경 문구 사용 등이 “공립학교가 특정 종교활동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내용이 어긋난다”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또한 교내에서 종교적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주는 것 또한 위헌에 해당한다고 이 학교 대변인인 사리 보빈스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에 학교 풋볼팀 코치인 보비 보우든은 “나는 헌법 수정 제1조라든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보다는 ‘영적으로 올바르게(spiritually correct)’를 바란다”며, “코치는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을 도울 수 있

는 자리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지역 교계 지도자로 윈터미어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Wintermere)를 목회하고 있는 트로이 슈미트 목사는 “이러한 결정은 매우 슬픈 일이다”며, “더 이상 이 학교 풋볼팀과 함께 있을 때는 성경을 퍼거나 성경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관해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은 오렌지카운티공립학교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위헌을 문제 삼으면서 학생들이 기독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모두 금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압박에 모든 학교들이 오렌지카운티공립학교와 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다. 인근 지역의 세미놀고등학교(Seminole High School) 역시 재단으로부터 풋볼팀의 기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코니 콜린스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해서 기도한다면 이는 합법적이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오렌지카운티공립학교의 안타까운 결정에 대해서 슈미트 목사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연방법원, 루이지애나 동성결혼 금지법 인정

미국 연방법원이 루이지애나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동성부부에 대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래 최초로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크리스천포스트는 4일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 지방법원의 마틴 펠드만(Martin L. C. Feldman) 판사가 이날 “루이지애나 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정의내릴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드만 판사는 “어린이들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두 성(性)의 부모로 이뤄진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는 일에 대한 루이지애나 주의 관심은 합법적인 것이다”고 밝혔다.

펠드만 판사는 또한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최근까지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개념이었다”며, “비록 많은 미국의 주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동성결혼을 용인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결혼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그러면서 펠드만 판사는 원고 측으로 나선 동성결혼 금지법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만을 앞세운다면,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정상적인 결혼까지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 정부가 숙모와 조카, 형제와 형제, 아버지와 자녀의 결혼도 허용해야 하는가?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게 해야 하는가? 두 사람 간의 결합만 결혼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트랜스젠더 배우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고 측은 이러한 유형의 모든 결합이 모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펠드만 판사의 판결에 루이지애나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지지해 온 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 정부 변호인인 버디 웰드웰은 “주 정부에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하면 이러한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고 전했다.

반면, 동성결혼 금지법 폐지를 주장해 온 이들은 뜻밖의 결과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달튼 코슨은 “최근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왔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교회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신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중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천양예배 오후 1:45 심양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청년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일환, 이광, 김,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1-6기 수료생 배출, 현재 7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역품이나 기구없이 손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요 천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F(323)932-0788 /kuinholyc@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청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766-9922 / www.j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콜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중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박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청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하고, 이민이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혼을 존중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수요일양성령침례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산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재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ay-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K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십홀) 금요일양성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최호선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8: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10:00 / 11:45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0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10:00
목요성경예배 - 저녁 7:45
13800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월-금) 오전 05:30
12631 E. Imperial Highwa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혁 담임목사

변화 맞은 뉴욕전도대학, 김영환 이사장-허윤준 학장 취임



뉴욕전도대학이 개강 및 이사장·학장 취임예배를 2일 뉴욕만나교회에서 드렸다.

뉴욕에서 신실한 전도의 일꾼들을 양성해 온 기관인 뉴욕전도대학이 2일 개강 및 이사장, 학장 취임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사장에 취임한 김영환 목사와 신임 학장 허윤준 목사는 매주 유니온 스트리트와 노던블러바드 H마트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다.

김영환 목사는 “뉴욕전도대학은 전통 있는 기관으로 그동안 많은 평신도 전도자들을 배출해 왔다”면서 “최근에 학생이 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면서 더욱 많은 학생들을 기르고 전도 특공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준 목사는 “거리에 나가보면 뉴욕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있는 참예한 선교지이자 전도지”라면서 “이번에 훌륭한 이사장들과 감사진들이 세워졌다. 뉴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영환 이사장을 도우며 뉴욕전도대학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예배는 박현영 목사의 인도로 황경일 목사 기도, 새소망합창단 특송, 김승희 목사 설교, 김영환 목사 이사장 취임사, 허윤준 목사 학장 취임사, 송지혜-진광훈 축하, 김수태 목사 축사, 손소혜 집사 봉헌찬송, 안승백 목사 봉헌기도, 박차숙 전도사 광고, 황동의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전도대학은 이날 직전 이사장과 직전 학장인 김기호 목사와 최예식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전 이사장이었던 김수태 목사는 축사를 통해 새롭게 세워진 이사장과 학장에 대해 “충성스럽고 변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서 뉴욕전도대학의 발전을 기대했다.

현재 뉴욕전도대학은 2014년도 가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현장전도훈련으로 진행된다. 등록금은 1인당 100불이며 부부의 경우 두 명이 150불로 할인된다.

김대원 기자

'한인교회-CPACS-메트로시티뱅크' 손 잡고 배고픈 어린이들 돕는다

애틀랜타한인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와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대표 김채원), 메트로시티뱅크(이사장 백낙영)가 손잡고 클락스톤 난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배고픈 어린이들을 돕는다.

'CPACS-CHURCH-METRO CITY BANK'의 첫 글자를 따서 'CCM 프로젝트' 일명, '쌈'으로 이름 붙은 이번 프로젝트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비영리단체와 교회(종교단체), 그리고 은행이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손을 잡은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4일(목) CPAC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과정, 앞으로의 계획을 나눈 관계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던 중 '쌈' 프로젝트로 손을 잡게 됐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애틀랜타의 다양한 교회와 단체, 비즈니스들도 동참해 한인사회를 넘어 주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메트로시티뱅크는 시드머니(Seed Money)로 5만 불을 쾌척했으며, 프로그램의 진행과 성과를 보며 앞으로 3년간 최소 매년 5만 불을 기부할 것이라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김정호 목사는 “애틀랜타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들과 연합해 지난해 7월부터 노크로스 지역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급식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기업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고심하던 메트로시티뱅크에서 한인교회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부사업을 타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교회는 열정과 봉사자들은 많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애틀랜타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전문성을 갖고 사회복지 사업을 해나가는 곳은 CPACS만한 곳이 없다. 이미 클락스톤 난민촌에 들어가 1만 5천 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및 애프터 스쿨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난민 커뮤니티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CPACS 측에 문의해 지난 1년간 함께 사업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프로젝트의 과정을 설명했다.

백낙영 이사장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4만여 명의 난민들은 옛날 한국전쟁 직후 먹을 게 없어 굶주릴 때에 미국에서 원조로 보내준 밀크파우더로 죽을 쑤어 먹었던 기억을 되살리게 했다. '쌈'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 시절 한국 사람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 배부를 것이 아

니라 주변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김채원 총무는 “기업들이 돈을 벌면 자체적인 발전과 성장에만 투자하기 마련인데, 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CPACS 사업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펀딩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다. 무슨 프로젝트든지 최소 3년은 지속돼야,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1년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고 빠는 경우도 많다. 메트로시티뱅크에서 3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난민 어린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며, 나아가 그 부모들까지 교육시켜 커뮤니티 자체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난민뿐 아니라 저소득층 어린이들,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등의 교육사업, 복지사업으로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인교회는 미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난민 학생들과 인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금요일, 주말에 먹을 음식을 싸서 백팩에 넣어주는 프로젝트를 해 오고 있었다.

CPACS 역시 일년 내내 운영되는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과 섬머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별로 40개가 넘는 클래스에서 난민 학생과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약 200~220명의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CPACS 빌딩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부도 공부지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음식을 가져가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기관의 사역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메트로시티뱅크에서 시드머니를 약속하면서, 두 기관은 각기 하던 일을 더욱 능률적으로 함께 하기로 하고 ‘쌈’을 발족하게 된 것이다.

‘쌈’ 프로젝트는 크게 세가지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며, 둘째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업을 돕는다. 셋째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바른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문의는 CPACS 770-936-0969, ext 125(담당자 요틴) 혹은 애틀랜타한인교회 678-381-1004로 하면 된다.

박현희 기자

뉴욕기독교TV 15주년

축복 속 단비기독교TV로 새 출발



단비기독교TV 출범식이 28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뉴욕기독교TV(KCTS)가 15주년을 맞아 단비기독교TV(단비TV)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신임 이사장에 양춘길 목사, 신임 사장에 정상교 집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단비기독교TV 출범식은 지난 28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1999년 첫 방송을 시작한 뉴욕기독교TV는 초대 이사장 방지각 목사, 2대와 4대 이사장 김중언 목사, 3대 이사장 이영희 목사, 5대 이사장 문석호 목사 등이 뉴욕과 뉴저지 교계를 중심으로 이끌어 왔다. 사장은 15년간 박용기 장로가 맡아 헌신했다.

단비TV는 복음이 닿지 않는 메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방송이 되기를 희망하여 이름을 '단비'로 정했다.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 '말씀의 단비', '생명의 단비'가 되는 방송이 되겠다는 의지다.

이에 단비TV는 단비를 형상화한 십자가 모양을 로고로 사용한다. 붉은색, 파랑색, 초록색, 보라색의 십자가 형상은 보혈, 생명, 희망, 고난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비TV는 선교 다큐멘터리와 단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영상 선교의 장을 연다는 각오다. 또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DanbiTV.com)를 운영하며 교계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전하는 '단비 뉴스'를 비롯해 덕망있는 인물과 함께 이슈를 짚어보는 '초대석', 세상을 크리스천의 눈으로 바라보는 '뒤집어보는 세상' 등을 새롭게 개편 중에 있다.

28일 진행된 단비기독교TV 출범식 1부 예배는 최창섭 목사(에베에셀선교교회)의 사회로 황동의 목사(뉴욕목사회장) 기도, 뉴욕장로성가단(지휘 이정진 장로) 특별찬양, 김종덕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말씀, 조덕현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이취임식은 안자경 집사(단비TV 뉴스진행자)의 사회로 양춘길 목사(이사장)의 인사말, 공로패 증정 및 이임사 문석호 목사(직전 이사장), 공로패 증정 및 이임사 박용기 장로(직전 사장), 공로패 증정 강현석 장로(KCTS 재정이사, 단비TV 부이사장 및 후원회 이사장), 감사패 증정 엄정남 장로(KCTS 후원이사), 이병준 목사(뉴저지교협 부회장) 축사, 미셀길(뉴욕필하모니 부악장) 특별연주, 단비TV 소개영상, 정상교 집사(단비TV 사장) 광고, 이종식 목사(메이시드장로교회)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시애틀 형제교회故 최용걸 목사, "참된 목회자의 본 보이셨다"

입관예배 및 천국 환송예배 교회장으로 거행

시애틀 형제교회 1대 목사로 1971년부터 1983년까지 12년간 사역하면서 교회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던 고 최용걸 목사의 입관예배가 지난 4일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시애틀 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형제교회 장으로 거행됐다. 엄숙한 가운데 진행된 고인의 입관예배는 직계 유가족은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했던 그의 뜻을 기리는 조문객들로 가득

었다. 시애틀에 본부를 둔 예수세계선교회는 세계 곳곳에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원주민 선교사를 발굴해 전도와 교회 개척, 말씀 훈련을 진행하면서 선교지와 후원교회들을 연결하는 선교 지원을 감당하고 있다.

고 최 목사는 강단에서 하는 설교 외에도 삶으로 목회를 했던 목회자였다. 최 목사는 시애틀 이민 초창기 어려웠던 이민자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일에 적극 헌신했다. 성도들의 이동을 비롯해 일자리와 집을 마련해 주기까지 소소한 일에도 이민자들과 삶을 함께 하며 동고동락했었다.

고인은 당시 시애틀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의 손과 발이 돼,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 수속부터 이민자들의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동분서주하며 섬김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조문객들은 "고 최 목사님은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모든 성도들을 자녀 삼아 시애틀 한인들과 교회, 유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던 사랑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심관식 목사는 "고 최 목사님은 일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고귀한 삶을 사셨다"며 "이 땅의 부귀영화나 명예, 권세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고,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를 집례한 권준 목사는 "1980년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애틀 형제교회에 출석할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후 시애틀 형제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저를 보면서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다"며 "최 목사님은 매주 형제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며 하나님을 섬겼던 참된 예배자였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어대학장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덕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찬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옥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제출)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제출)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6: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인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집회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6: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인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집회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장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6: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인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집회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산책과 생활화, 사랑을 강도대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목요 성령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8842 Teller Ave. Irvine, CA9261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213.327.4710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기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기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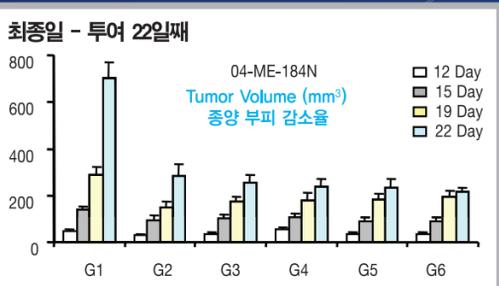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형사례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 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WCC, 이라크 기독교인 보호와 인도주의 지원 촉구

현지 파견 대표단, 교인들 고통에 대해 증언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세계교회와 국제사회에 이슬람국가(IS)의 박해 아래 놓인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호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WCC 대표단은 지난 주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 마련된 기독교인 난민 캠프를 방문해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돌아보고 왔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올라프 트베이트 총무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345개 회원교단·단체들에게 이들 교인들을 돕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극도의 약자인 기독교인들과 소수종교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트베이트 총무는 “지금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해 이 같은 잔혹함을 규탄하고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라며 “부디 정의와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현지 방문에 대해서 “이라크의 형제 자매들과 다른 소수종교인

들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점에서 WCC 대표단이 연대감을 표시하고자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대표단을 이끈 피터 프로브 WCC 교회와국제문제위원회(CCIA) 위원장은 “IS가 대표하고 있는 종교 그룹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나 야지디, 타 무슬림 분파를 포함한 모든 종교 그룹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히 야지디인들에 대해서는 ‘집단학살’ 수준의 박해가 이뤄졌다”고 고발했다.

프로브 위원장은 현지 구호 단체의 발표를 인용, 이처럼 IS의 박해로 난민이 된 이들 가운데 긴급구호의 수혜를 받고 있는 수는 20%도 채 안된다고 밝혔다. 트베이트 총무는 이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베이트 총무는 이라크 정부에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이라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트베이트 총무는 군사개입이 필

요할 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이라크 지역 내에서의 군사개입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왜 군사개입에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한지를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는 IS가 모술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에서 세를 확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6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난민들의 다수가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피난 중이나 쿠르드 정부가 극도로 많은 수의 난민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는 데다, 국제사회의 긴급구호가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쿠르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건물을 난민들을 위해 개방하고 교인들의 기부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WCC의 협력 단체인 ACT 얼라이언스도 이 지역에서 교회들과 연합해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트베이트 총무는 회원 교단과 단체들에 이라크 교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미 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손현정 기자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IS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까

지난 몇 달간 신문과 TV 방송을 통해 세계인들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가 벌이고 있는 잔혹한 폭력행위들의 참상을 전해 들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IS의 반인도적인 범죄는 분명 전 세계가 하나되어 단호히 맞서야 하는 문제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저질러서는 안되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태도로 이들의 범죄에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고, 박해당하는 이들의 편에서 서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 대한 증오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 온 IS와 다를 바는 무엇인가?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기독교인 독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신문은 ‘가장 어려운 기도: 왜 IS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The hardest prayer: why it’s time to #prayforISI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최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문제를 다뤘다.

“만약 우리도 증오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IS와 맞선다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원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악랄하게 핍박을 가할 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분부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 속에 희생되고 있는데, IS를 위해 기도하러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라크 상황과 관련하여 내놓는 기도제목들에도 IS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서브(Interserve) 역시 교인들에

게 제공하는 기도제목에 IS를 위한 기도를 포함시켰다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으로 최종 발표 전에 이를 삭제했다.

이 단체의 스티브 벨 대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우리를 공격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더 기독교인다운 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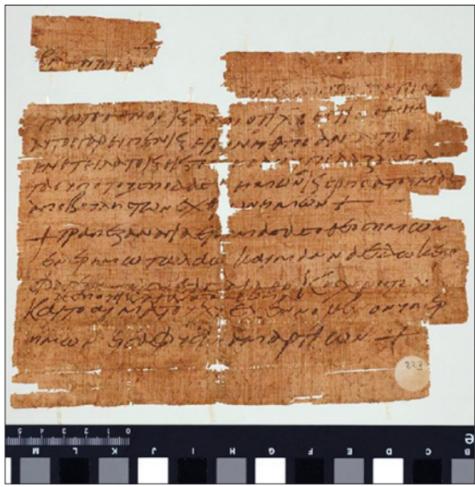
그러나 벨 대표는 기독교인들이 IS에게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손길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IS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기도에는 인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며, “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이들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S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악인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복음에 율법은 모세에게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고,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IS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신문은 이에 대한 조언을 세 가지 제시했다. △IS가 소탕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IS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행동이 성공하기를 기도하기보다 평화와 화해가 이뤄지기를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IS 조직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손현정 기자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공개한 고대 파피루스. ©맨체스터대학교

최후의 만찬 처음 언급

1,500년 전 파피루스 발견

스는 실제로 이를 소유한 주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언어가 담긴 부적과 같은 것이었다”며 “이는 중요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발견”이라고 설

과 같다. “너희 모두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 열방들아, 너희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라.” “그가 말함으로써 그들이 나타났고, 그가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지음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사막에서 구별된 자리를 마련하시고, 신약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의 영원한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파피루스는 또한 시편 78편 23~24절, 마태복음 26장 28~30절의 일부, 다른 성경구절도 포함하고 있었다. 손현정 기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처음 언급한, 1,500년 전 파피루스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를 “가장 오래된 기독교 부적”이라고도 표현했다. 이는 맨체스터대학교 존 라이랜드 도서관(John Rylands Library)에 소장된 고대 문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로베르타 마자(Mazza) 박사는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파피루

말했다. 마자 박사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성경구절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독교와 성경이 제사장과 엘리트들에게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예”라고 설명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21cmi.com 을 방문하세요

이단논쟁
믿을 수 있나?
.....

저자 | 조병철 (미정로교 목사)

- 영락 새문안교의 부목사
- 환경직목사 기념교회 초대목사
- LA 빌리그레함 전도대의 한국교회 대표
- 컨템포러리 목회원 원장
- 한양공대 회공과, 장신대, 유니온 신학대학원 구약전공
- 암파코스 교재번역 및 한국어 소개약 10만명 참여
- 미주목회 33년

교회리더들에게 영성형성의 기본을 이해하게 하고 오아시스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 김찬도 목사

이단논쟁
믿을 수 있나?

한국교회의 이단논쟁에 규범을 제시한다!

- 비판자들이 근거로 삼는 57지 해석 오류
- 은사가 종로냐, 계숙이나?
- 이단대책 위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67지 어휘들
- 역사적 주류교단에서의 은사 이해
- 존 맥아더의 사한부 은사론 반박
- 정통교리와 정통실행
- 믿을 수 없는 이단사상모들(한국, 미국)
- 은사의 위험과 남용
- 예언은사의 중요성
- 다윗의 징막

핍박받는 리더들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변론

-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개혁운동
- 마이클 비클의 HOP / 엘리야 기도운동
- 손기철 장로의 치유사역
- 김기동 목사의 보뢰아 사상
- 최비울 선교사의 인터뷰
- 박윤식 / 윤석전 / 예태해 / 변승우
- 알파코스 (세계 주류교단 포함, 150여 교단 1800만 참석)
- 이명범 목사 (프레스 디어스 - 세계 주류 교단에서 실시, 대도시에서 교단 연합으로 실시)
- 조용기 목사

구매안내 *NY(할렐루야 서점) LA,OC(기독교서점과 일반서점)
LA지사 : 책값 + 송료 = \$29.95을 아래 주소로 보내세요. 수표에 CHO 라고 쓰세요
217 S. Serrano Ave. #9 LA, CA 90004 컨템포러리 목회원 213-380-3398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KOBE PEARL LAS VEGAS

Hyunmi

현미 팬사인회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9월 11일(목) - 12일(금) 2일간
로텍스호텔 2층 연회장



천연 양식 해수진주, 남양진주, 아코야진주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인 가격대의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등 3000여점의 제품을 진주전문업체 고베펄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무조건 2014 총정리 초대박세일!!

가수 현미씨와 함께하는 고베펄 10주년 진주보석쇼



Helen Aiko LAS VEGAS KOBEPEARL
헬렌아이크 천연 홍산호



Helen Aiko LAS VEGAS KOBEPEARL
헬렌아이크 프리미엄 골드 남양진주



프리미엄 아코야 한줄 목걸이 세일가격 \$1199

일본공법 한국세공

'학' 스타일.. 고베펄 진주목걸이는?

고베펄 사의 '학' 스타일 진주 목걸이는 고객님들의 목선을 날씬하고 '찰랑찰랑' 거리게 하면서 착달라 붙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외출하면 마치 학(鶴)이 되어 걷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고베펄 사만이 가지고 있는 실이 아닌 와이어에 의한 독보적인 세공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아코야 진주란? あこや真珠

아코야 진주는 다른 진주 양식법과 다른 아코야라는 조개패에서 한알 한알 일본 현지에서 양식하는 진주로서, 그 빛깔이 영롱하여 남양진주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있는 제품입니다. 미키모토 또는 카르피에와 같은 '명품' 유통리업제에서 사용하는 진주입니다. 고베펄 프리미엄 헬렌아이크에서 아낌차게 준비한 아코야 특별 세일 기획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인 정서에는 역시 한국세공 보석이 잘맞습니다!"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고베펄 세공 공장에서 100% 제작된 한국공법 유색보석 신제품들을 만나보세요!

AKOYA PEARL 헬렌아이크 명품 아코야진주 특별세일

- 아코야 한줄 목걸이 (6mm - 6.5mm) Retail, \$3300
AKOYA SINGLE STRAND w/925 Silver Clasp **\$799**
- 아코야 한줄 목걸이 (6.5mm - 7mm) Retail, \$3999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1199**
- 아코야 두줄 목걸이 (6mm - 6.5mm) Retail, \$5999
AKOYA DOUBLE STRAND w/925 Silver Clasp **\$1499**
- 아코야 한줄 목걸이 (7mm - 8mm) Retail, \$7300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2599**

* 헬렌아이크 프리미엄 아코야 진주는 화이트루트로 준비되어있습니다. 길이와 크기 빛깔에따라 가격이 소폭 다를수도 있습니다. 수령이 한정되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 모든 헬렌아이크 아코야제품은 보증서와 워런티가 포함됩니다.

KOBE PEARL 문의 전화 **213.389.3887**
진주전문회사 고베펄 창립 10주년 영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고베펄과 함께 성장하실 취급점 모집합니다. VISA, MasterCard, DISCOVER, American Express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 2일간
2014년 9월 11일(목) - 9월 12일(금),
행사 장소: 로텍스 호텔 2층 연회장
Rotex Hotel Banquet 2nd F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오후 2시 - 오후 6시 까지 고베펄이 현미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일정 단 하루
행사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행사 장소: 라마다 플라자 호텔
Ramada Plaza 2층 Pacific Hall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고베펄 벌몬 갤러리아점 단 하루
행사 일시: 2014년 9월 14일(일),
행사 장소: 벌몬 갤러리아 1층
Vermont Galleria Market
Kobeppearl store (5가 와 벌몬)
440 S Vermont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가든그로브와 벌몬갤러리아 행사는 현미씨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④ 교황무오교리

교황이 무오(無謬)하다고 믿는 로마가톨릭교회(1)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황이 무오(無謬)하다고 믿는다.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엇을 결정·선포할 때 그에게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교황이 결정하고 성명·선포한 것은 교회가 동의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바뀔 수 없다. 후대의 교황도 바꿀 수 없다.

교황무오교리의 유효성은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하므로 절대적이며 불변하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준 최상의 교도권(敎導權)이므로 비판·항의·거역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교황무오교리는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교리는 역사적·성경적 근거가 없다. 정당성 입증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라 일컫는 전통론과 더불어, 지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황제국을 떠받쳐 온 권력지향적·배타적·독선적 기동이다. 교회개혁을 방해한다.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금하는 것을 교황이 상반되게 선포해도, 그 명령에 항거하지 못하게 한다. 무조건적 순종·복종·맹종을 요구한다. 교황이 무오하다는 발상은 교황직을 신성불가침 영역에 두어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계급주의 제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이단적 발상이다.

1. 기록되지 않은 성경

교황무오교리는 사도직 계승론, 교계제도, 교황수위권 교리와 더불어, 로마가톨릭교회론의 바탕인 전통론에 기초해 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론을 이해해야 교황무오교리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다.

로마는 전통(傳統, tradition)을 전승(傳承), 성전(聖傳), 유전(遺傳), '기록되지 않은 성경', '기록되지 않은 전통', '전승되는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표현한다. 무오(無謬)와 무류(無謬)는 같은 뜻이다. 개신교회는 전자를 로마는 후자를 선호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눈에 보이지 않고 기록되지도 않고 실제 없이 전승되는 무엇이 교황에게, 교황과 더불어 주교단에게 계시로 주어진다고 믿는다. 교회 초기부터 전승되어 오는 교훈과 실천 관행과 구전(口傳)으로 전달되는 가르침을 일컬어 '거룩한 전통', 곧 성전(聖傳)이라고 한다. 이것이 방

치되지 않고 사도직 계승이라는 방법으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다고 한다. 교황, 그리고 교황과 함께 하는 공의회가 이를 전유(專有), 독점하고 있다고 본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모두 진리의 원천이라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가 병립(並立)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통과 성경이 나란히 있지 않고, 전자가 후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기록되지 않은 성경(전통)'이 수위(首位)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기독교 신앙에 구속력을 가진 전통, 성경, 교황의 교도권(敎導權)은 교차 관계에 있다. 독립적이지 않다고 한다.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난 뒤에 모인 트레트공의회(1546)는 성경과 전통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언했다. "진리와 규범이 기록된 책들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사도들에게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안에도 보존되어 있다(제1차 회기, 제1교령, <보편공의회문헌> 3, 663)"고 했다. '전통'의 계시를 따라 위경 7권을 구약성경에 포함시켰다. 로마가톨릭교회의 성경은 73권이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1870)도 전통의 계시성을 강조했다. "초자연적 계시는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 담겨 있는데, 이 전통은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와 사도들에 의해 수용되었거나 성경의 영감에 의해 그 사도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수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다(앞의 문헌 806)"라고 한다.

흥미롭게도 제2차 바티칸공의회 '계시현장(1965)'은 복음과 전통을 논하면서 기독교 전체를 묶는 하나의 복음 전통이 있음을 인정한다. "전통과 성경은 밀접히 같이 매여 있고, 서로 공통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곧 성전과 성경은 하나님의 꼭 같은 샘에서 흘러나오며, ... 같은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제9항)"라고 한다.

이것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가시적 교회일치를 목적으로 고안한 '전통론(1963)'을 일부 수용한 결과이다.

'계시현장'은 "오로지 성경으로만 모든 계시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제9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2조)"라고 한다.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성전(聖傳)과 신구약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을 참 모습 그대로 얼굴을 맞대고 비울 수 있을 때까지 지상의 순례하는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관상하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받고 있다(제7항)"고 한다.

그리고 성경과 전통은 교회 또는 교황의 교도권과 분리할 수 없다고 한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전승되는 '하나님 말씀'—전통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이다. 베드로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이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열쇠와 교도권은 로마 교회의 수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한다(계시현장 제8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20조). 로마는 성경의 독립성·완전성·총족성을 부정한다. 성경과 전통과 교도권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계시의 영역이 하나님과 돌인가 하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권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이 전통의 진행·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정경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전통—성전(聖傳)을 가진 자에게 있다고 본다. 전통의 산물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현실화시키는 데는 전통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전통과 성경을 분리하거나 독립시키면 성경이 갖는 본래의 가치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성경은 '항상 살아 있는 거룩한 전통'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교황무오교리와 직결된 '성경과 전통' 주제는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가로놓인 루비콘 강이다.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과 돌인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신앙에 구속력이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기록인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 원천이라고 믿는다.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과 영감 안에서 기록된 성경 66권이, 신앙과 교리의 최종적인 척도이며 표준이라고 확신한다.

2. 교황무오교리

교황무오교리는 제1차 바티칸공의회(1870) 문헌 '영원한 목자'에 처음 나타난다. 당시의 교황 비오 9세(1846-1878)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행위로 선포할 때, 오류가 없다고 선언했다.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곧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자와 교사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는 전(全)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교리 또는 도덕 문제들을 규정한다. 이때에 교황은 복된 베드로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무류하며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이 내린 정의들을 변경할 수 없다(Infallibility, The Catholic Encyclopedia VII, 1907, 796)"고 했다.

교황은 우주적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직책상 완전한 최상의 전권을 가졌고, 믿음과 도덕, 그리고 교리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교황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진 주교단도 무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의 그르칠 수 없는 교도권 교리를 모든 신자가 굳게 믿어야 할 것"으로 재천명했다(교회헌장 제18조).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무오성을 지닌다(제25항)"고 한다.

'교회헌장'은 교황무오교리가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선언한다. 교황이 결정 선언한 신앙(교리)과 도덕에 관한 것은 바뀔 수 없다. 교회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어느 누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상소의 대상이 아니다.

교황무오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위력이 펼쳐지는 그 만큼 펼쳐진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91조)". 성경과 전통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교리이다. 변경할 수 없다. 교황이 공적으로 결정·성명·선언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는 나중의 교황, 공의회가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교회헌장'은 주교단도 교황이 지닌 무오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교황과 더불어 결정할 때"라는 제한 조건을 붙인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제25항)"고 한다.

교황무오교리에 대한 신성불가

침 선언은 교황 제국(Papal Monarchy) 건설에 몰입하던 중세기 교황이 선언한 '우남상탐(Unam Sanctam, 1302)'을 연상시킨다. 지상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권력(One Holy)만 존재한다. 한 목자 아래에 한 양떼가 있을 뿐이다. 세상 권력은 영적 권력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적 권력의 오류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한다고 했다. 교황과 교회의 탐욕스런 세속적 야망을 담은 '우남상탐'은 교황 인노첸트 3세(1198-1216)가 저지른 신앙과 교리의 오류였다.

예수께서는 로마가 '첫 번째 교황'으로 간주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꾸짖었다(마 16:23). 자신의 대속사역 곧 신앙 교리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였다. 교황 바오로 5세(1605-1621)와 우르반 8세(1623-1644)는 천동설이 교회의 해석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금서 목록에 올리고, 갈릴레오를 고문하고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교황이 저지른 교리적 오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세인들을 고려하여 교황무오교리에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그르침이 없다(교회헌장 제18조)"는 단서를 붙였다.

교황무오교리의 심각성은 그리스도와 교황을 동격화하고, 나아가 교황, 교황좌, 교황과 주교들로 구성된 교계(敎階)를 신격화, 절대화하는 데 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신빙성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살후 2:15; 고전 11:23; 고전 15:3-11), 그렇지 않은 것들도(마 15:2-3, 골 2:8)도 있다. 장로들의 유전인 손 씻는 규례, 할례, 철학, 신화, 민담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기록인 성경과 동격(同格)의 권위를 가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나님은 성경해석을 독점할 권위를 가진 신성불가침의 인물이나 교회를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하고 무오한 법칙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새로운 계시 또는 인간의 전통 등 그 무엇도 기독교의 성경 66권에 첨가할 수 없다고 한다(제6조). 로마가톨릭교회가 앞세우는 배타적 교도권이 '거룩한 전통'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한다(제5항).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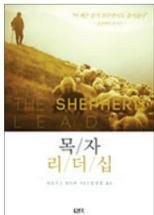


신간추천

목자 리더십

티머시 Z. 윌트머 | P&R | 3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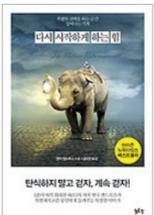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지적, 성경적으로 균형 있게 제시한다. 섬세하고 현실감 있게 목회를 위한 리더십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목회자이자 실천신학 교수인 저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시대에 효과적인 목양과 그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앤디 앤드루스 | 36.5 | 328쪽

<폰터 씨의 위대한 하루>를 쓴 저자가 들려주는 '특별한 삶의 비밀'. 행운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라고 주인공 존스는 "만약 당신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찾아 헤매도 결코 행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행운을 바라기 전에 먼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뜻한 위로 대신, 엄격한 충고를 통해 용기를 북돋아 준다.



폭풍 속의 주님

켄 가이어 | 두란노 | 232쪽

<십자가를 바라보라(아드폰테스)>의 저자가,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앓으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펜을 놓고 인생의 곤고한 날을 보낸 고백을 진솔하게 담았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자가 시련에 갇혀 있던 그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신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련을 도와주는 순간, 자신의 폭풍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흔적신학

장경철 | 더드림 | 192쪽

교수로서 청년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는 저자가, 지성으로 접하고 감성으로 풀어낸 이야기.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자연과 삶, 인간 내면의 영혼에 계시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설명해 준다. 딱딱한 교리 속에 갇힌 분이 아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REVIEW

“이신칭의는 루터 이전,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개혁주의 신학자 5명, 이신칭의를 말하다 <오직 믿음으로>

지평서원의 '21세기 리폼드 시리즈' 4권 <오직 믿음으로(Justification by Faith Alone)>는 다섯 명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명쾌하게 설명하는 칭의 교리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다. 존 맥아더가 '루터 이전: 예수님과 칭의 교리'를 비롯,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주제로, R. C. 스프롤은 '칭의 교리의 법적 특성', 조엘 비키는 '믿음과 칭의와의 관계', 존 거스너는 '의롭다 하는 믿음의 본질', 돈 키슬러는 '더하는 것이 오히려 결함이 되다'를 각각 기고했다. '오직 믿음으로' 즉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시대 개혁주의 거장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정리하고 있는 것.

왕성하게 집필 활동 중인 존 맥아더 박사는 첫 글에서 "복음주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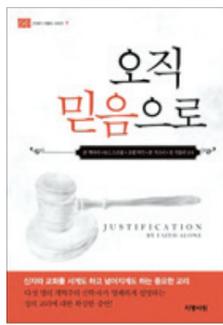
학에서 종교개혁의 원리, 곧 이신칭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성경적 칭의 교리는 이를 남용하여 성화를 분리시켜 도덕 폐기론으로 빠지는 이들과, 칭의와 성화를 뒤섞어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칭의의 본질로 여기는 이들(가톨릭)의 두 측면에서 전심을 다해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맥아더 박사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복음'을, 종교개혁자들에게 대응해 모인 16세기 트레트공의회(Council of Trent)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규범과 법령들은 오늘날까지 로마교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중요하다는 것. 이 공의회는 신자가 신적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행위를 의롭게 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그리하

여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맥아더 박사는 "그들이 묘사하는 '의롭게 됨'의 교리는 사실상 하나님 은혜를 부패시키는 '다른 복음'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트레트공의회는 또 '의롭게 함'을 죄인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 봄으로써 성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또 죄를 지은 신자들에게 반드시 '종교 의식(고해성사)'을 통해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의 원칙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믿음+행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러했듯) '칭의 교리'라는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신칭의는 주님의 복음 설교와 모든 가르침에 충만하게 스며 있는 기본



오직 믿음으로
존 맥아더 외 | 지평서원 | 192쪽

원리(요 5:24, 눅 23:43, 마 9:22; 막 5:34, 10:52; 눅 8:48, 17:19, 18:42)"라고 설명한다. 그는 "예수님은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며 "예수님은 추상적인 신학을 제시하지

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비유를 들어 이 요점을 분명하고도 쉽게 가르쳐 주셨다"고 평가했다.

트레트공의회는 '전가된 의' 대신 '은혜가 신자의 마음에 주입됨으로써 신자의 마음에 의(신자 자신의 의)가 내재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맥아더 박사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한다. 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총만하고도 완전한 의를 세리에게 전가하심으로 모든 불의를 용서하고, 모든 정죄에서 그를 해방하셨으며, 세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며 "그 이후로 영원토록 세리는 자신에게 전가된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칭의이고 참되고도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 척추 교정
- 골반 교정
- 자세 교정
- 근육 교정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통 및 보약
- 기타 : 비만치료
- 이런분께 ...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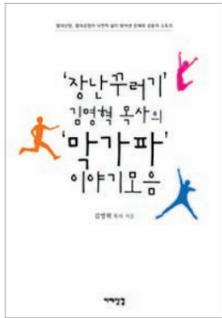
352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장난꾸러기’ 김명혁 목사의 ‘막가파식’ 자서전 출간

“의인으로 살기보다 차라리 죄인으로 사는 게 안전하다고???”

한국교회의 대표적 원로이자 멘토인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가 자전적 고백을 담은 <장난꾸러기 김명혁 목사의 막가파 이야기 모음(이레닷컴)>을 발간했다. 열한 살 때 마음껏 주일예배를 드리고 싶어 홀로 38선을 넘은 김명혁 목사는 온갖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일관한 신앙인이다. 결국 ‘순교자의 자손’이 된 그는 신학교 교수이자 교회 목회자로 헌신했으며, 은퇴 후에는 이 땅의 작은 교회들과 전 세계 선교지들을 다니며 낮은 자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난꾸러기 김명혁 목사의 막가파 이야기 모음

“기질도, 성격도 운명”이라고 할 정도로, 김명혁 목사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긍정적·낙천적 기질과 성격을 통해 ‘절대 신앙, 절대 긍정’의 삶을 살고 있다. 제목처럼 책에는 어떠한 난관도 즐겁게(?) 극복했던 그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김목사는 이에 대해 “장난꾸러기이자 ‘막가파’로, 평생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막 뚫고 나가면서’ 즐겁게 살아왔다”며 “막가파라는 별명은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한에 내려온 후 고교 3학년 때도 주말이면 전도를 나갔다고 한다.

결국 그는 교회를 개척했고, 100명 가까운 성도들을 모이게 한 데서도 ‘신앙의 막가파’ 면모가 드러난다. “주일마다 학교에서 오라고 했지만, 학교에 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월요일마다 선생님들로부터 벌을 받았고, 정학까지 당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주일성수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경험은 훗날 김 목사가 주일시행 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김 목사의 주일성수관은 북한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이인복·최병목·명선성 선생님들께서 주일성수

신앙과 새벽기도, 순교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회고한다.

이 외에도 김 목사는 책에서 한국교회 역사의 주요 인물들인 한경직·김치선·이성봉 목사와의 만남, 단돈 100달러로 떠난 미국 유학, 주일시행 반대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으나 주눅 들지 않고 주일 설교 준비를 했던 이야기, 여권·비자·비행기표·여행자 수표·카메라·성경·기행문이 든 가방을 도둑맞고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한 일,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끌려 강원도 감자 1,690톤을 북한에 보낸 스토리,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혼자 넘어간 사연 등을 전한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평생의 신앙 비결을 성경 인물들에 대한 고백으로 대신한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었고, 막대기로 흥해를 가른 모세를 좋아하게 되었고, 여리고 성을 일곱 번 돌아서 무너뜨린 여호수아를 좋아하게 되었고, 사자 굴과 풀무밭 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들어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사망아 네가짓 것이 무엇이냐’ 호령했던 사도 바울을 좋아하게 되었다.”

또 “나는 너무 안전한 것보다 ‘장난꾸러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옳고 그른 것을 너무 철저하게 따지는 것보다 ‘대강대강’ 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며 “최근에는 의인으로

살기보다 차라리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마 9:13)”이며,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했기 때문(롬 5:20)”이다.

그는 “앞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막가파’ 기질과 모험심, 담력을 지니고 막 뚫고 나가면서 즐겁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음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전하고 있다.

김 목사는 실제로 고난이 적지 않았다. 사랑하는 부모와 어릴 때 이별하고, 어린 아들 철원은 불치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다. 그러나 쓰라린 슬픔과 아픔이 보석이 되는 것도 경험했다. “내가 경험한 슬픔과 아픔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또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슬픔과 아픔까지, 아니 핍박과 죽음까지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김명혁 목사는 신의주제일교회와 평양서문밖교회에서 목회하다 공산당에 의해 투옥된 부친 김관주 목사 밑에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 만 11세 되던 해인 1948년 8월 가족들을 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홀로 38선을 넘어 서울로 넘어왔다. 그 후 한경직, 명선홍, 김치선 목사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목회의 길을 걸었다. 한경직 목사의 조언으로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B.A.)를 수학한 후 용산 총회신학교에서 1년 공부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 웨이스신학교(B.D.)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Th.M.)와 예일대 신학원(S.T.M.), 아퀴나스 신학원(Ph.D.)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한 후 풀러신학교, 튀빙겐대 등에서 연구와 학문활동을 이어갔다.

한국에 돌아온 김 목사는 후암교회 교육목사를 시작으로 총신대 강사, 조교수, 부교수, 영안교회 담임 목사, 강변교회 담임목사, 합동신학교 부교수·교수·교장을 거쳐 한기총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합동신대 명예교수, 한복



김명혁 목사(우측에서 두번째) 등이 지난 1월 파키스탄 올세인트교회를 방문, 현지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모습. 올세인트교회는 과격파의 테러로 130여 명이 생명을 잃고 17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곳이다.

협 회장, KWMA 공동회장 등을 맡고 있다.

강변교회 은퇴 후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작은 교회든 외딴 섬이든 외국이든 달려가 복음을 즐겁게

전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또 한국 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범종교계 지도자들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추천사 ◇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목사) : 김명혁 목사님! 그 모험, 그 아슬아슬한 때의 그 슬기, 그 아이큐, 어디서? 자신감 있게 사시는 그 신앙의 양상,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임마누엘에 사시는 그대로입니다. 위대한 모험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민경배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 김명혁 목사님의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선교여행 글들은 거기서 누적된 풍부한 경험과 사상을 정밀하고 체계로 엮어내어, 향후 반드시 체계화 되어야 할 ‘한국의 선교신학’의 기본 자료가 될, 아주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 하나님께서 김명혁 목사를 한국교회와 사회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솔직하여 꾸밈이 없고 순수한 데다 담대하여 도무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천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입니다.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목사) : 개혁자, 화해자, 조정자로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 범종교계의 교류 협력과 사회통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지평을 넓혀 가시는 행보는 숨가쁘게 따라다니는 후배들에게 선구자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계십니다.

전병근 목사(강남교회 담임목사) : 우리 한국교회의 자라나는 세대가 김 목사님의 ‘막가파식’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김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바울처럼, 진취적이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명혁 목사님의 ‘막가파 이야기 모음’이 청소년들과 청장년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박사(기독교학술원장) : 김명혁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한국 교계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진실로 소탈한 분이요 어린아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순수하고 신앙적인 노력으로만 미래를 열어가신 모습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례입니다.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검사. 최첨단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루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되어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40%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션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il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잘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윈현대 칼슨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33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진정한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예배는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대하며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라는 칼 바르트의 말처럼, 예배는 크리스천의 삶에 큰 비중을 점한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수많은 구절로 가득하다. 이 중대한 예배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찬양이다. 크리스천이라면 자신의 신앙적 색채와 맞지 않는 찬양과 예배 분위기 때문에 어색하게 앉아 있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사역자라면 예배자의 색채와 자신이 고른 곡의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 난처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1993년 <축복하소서>로 시작해 <새벽이슬 같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나로부터 시작되리> 등 100곡 이상을 작곡하며 찬양사역의 불을 일으켰던 이천 목사가 “가장 행복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경배와 찬양 세미나를 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9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 4주에 걸쳐 열리고 있는 이 세미나를 기획한 이유와 찬양사역자의 삶에 관해 물었다.

- 찬양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찬양은 어렸을 때부터 만들었고 예수전도단에 들어가면서 구체화됐다. 1989년도에 <축복하소서>를 만들었는데 그 곡이 모임에서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전도단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훈련을 통해 1994년도부터 찬양사역에 헌신하게 됐다.

- 어떤 사역을 해 왔으며, 현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

예수전도단에 주로 있었다. 예수전도단에서 2년 정도 간사로 섬기고 1998년도에 밴쿠버에 있는 ATCS라는 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했다. 한국에서는 장신대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을 나왔다.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다. 1996년도에 <부흥>에 코러스로 참여했고, 1998년에 <마지막 날에>, <새벽이슬 같은>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개인 앨범은 2002년도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냈다.

미국, 중국, 밴쿠버와 하와이 열방대학에도 몸 담았으며 현재는 ANC 온누리교회 찬양사역자로 섬기며 미주복음방송에서 찬양의 꽃다발(AM1190, 월-금 오후 12:40-1:30)을 진행한다.

- 찬양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예배자들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것을 펼치기보다는 예배자가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끄는 것이다. 예배자도, 교회 목회자도 각자 자신의 신앙이 있다. 장로교는 칼빈의 신앙, 감리교나 성결교는 웨슬리의 신앙,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신앙, 은사주의교회도 다 각자의 신앙이 있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자신의 신앙의 색에 맞는 찬양을 불렀을 때 은혜를 받는다. 장로교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청년들을 놓고 그들 정서에 맞지 않는 찬양을 하거나, 나이든 이들을 앞에 두고 새로운 찬양을 하면 안 된다. 예배인도자, 찬양사역자는 공동체 문화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초교파적인 집회의 경우, 모든 사람의 신앙적 색깔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초교파적이라 해도 그 집회의 영성이 있다. 2차 대각성운동, 성결운동이라든지, 초교파 집회를 여는 분들은 대부분 부흥 운동의 영성을 갖고 있다. 부흥 운동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거기에 오신 분은 가만히 앉아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것보다는 체험을 기대한다. 그것을 모르고 차분하게 집회를 인도하면 그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는 집회의 영성이 예배에도 들어가 있다. 예배 시간에도 그런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나?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이지만 장로교 통합, 합동, 침례교,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했다. 제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 맞는 찬양인도자가 되려 한다. 저는 은사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영성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찬양을 할 때 나온다.

- 찬양은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추구

<새벽이슬 같은>의

이천 목사가 말하는

예배, 찬양, 영성



이천 목사

한다. 보수주의 신앙의 문제는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해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예배 안에는 경배와 찬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교만 해서 는 주님을 체험하기 어렵다.

-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 체험한다는 것을 구체화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있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전제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눈물이 흐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면 통회하게 된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 그분이나의 진정한 치유자임을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부르심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감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정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감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쁨의 합성도 토해내고, 통회의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 신앙생활에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 이를 기독교의 신비성, 예배의 신비성이라고 한다. 기독교 안에 신비성이 사라지면 화석화 된다. 정말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있는지 모호해진다. 화석화된 기독교의 문제는 머리모만 알고 삶이 없다는 점이다. 주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

는 ‘신비성’이 살아 있어야 한다. 신비성이 사라진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 찬양사역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결코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며 배고픈 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한다.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 앞에 서는 자리라 유혹이 있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 어떤 훈련을 받는가?

찬양팀을 이끌어야 하고 성도들 앞에 서는 자리이니 관계훈련을 많이 받는다. 성도들의 불평으로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품고 가야 하고, 성도들이 찬양팀을 공격하면 찬양팀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정적인 훈련도 받는다.

- 찬양사역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

곡을 만들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됐다. 처음에, 축복을 나눠주기 위한 마음으로 쓴 곡이 <축복하소서>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내가 사용된다는 것이 감사했다. 요엘서 2장을 통해 <성령이 내 영혼을 만들었다. <새벽이슬 같은>을 만들 때는 ‘젊은이가 일어나는 모습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주셨다.

주께서 찬양 속에서 살도록 끌어오셨고 수많은 찬양들로 나를 만드

셨다. 젊은이들과 함께 뛰면서 찬양한 그 순간들이 감사하다.

- 찬양사역자로만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한다. 찬양사역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가?

CCM 판매가 부족하고 수익구조가 기획사나 통신회사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찬양사역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대중음악계에 노예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CCM도 똑같다.

그러면 사역현장이라도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많이 줄었다. LA도 찬양사역자가 많으나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사례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게 좋지 않을까.

- 찬양사역자로서 앞으로 어떤 후배들이 나오길 소망하는가?

각 교회가 추구하는 영성에 대해 잘 알고, 어떤 신앙적 전통에 속한 자라도 예배할 수 있게 이끄는 인도자가 나오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 특화돼 있는 것도 중요하나 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 비전과 기도제목이 있다면?

‘예배의 영성’을 주제로 경배와 찬양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또 2박 3일 동안의 찬양 캠프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음반과 찬양사역도 계속하며 예배학적인 경배와 찬양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설교하고 싶다.

© 이천 목사가 진행하는 경배와 찬양 세미나는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미주복음방송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등록비는 일인당 50달러로 교재비가 포함돼 있다.

© 세미나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 9월 8일 복음주의 교회와 경배와 찬양의 정체성
- 9월 15일 복음주의 교회의 경배와 찬양 업그레이드
- 9월 22일 오순절 복음주의 교회의 경배와 찬양 업그레이드
- 9월 29일 은사적 복음주의 교회의 경배와 찬양 업그레이드

문의: 213-381-1190

한 주디 기자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Good Neighbors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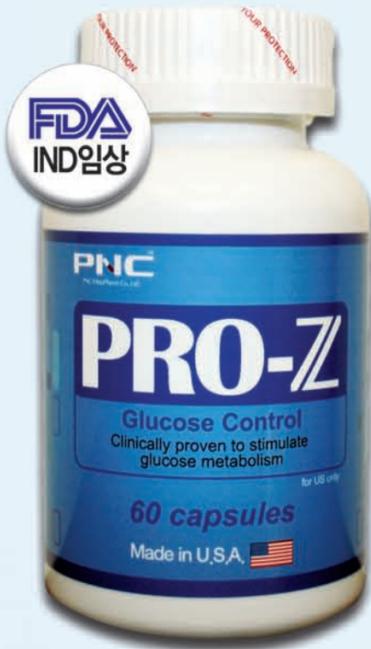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30만명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 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판매점

- **얼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